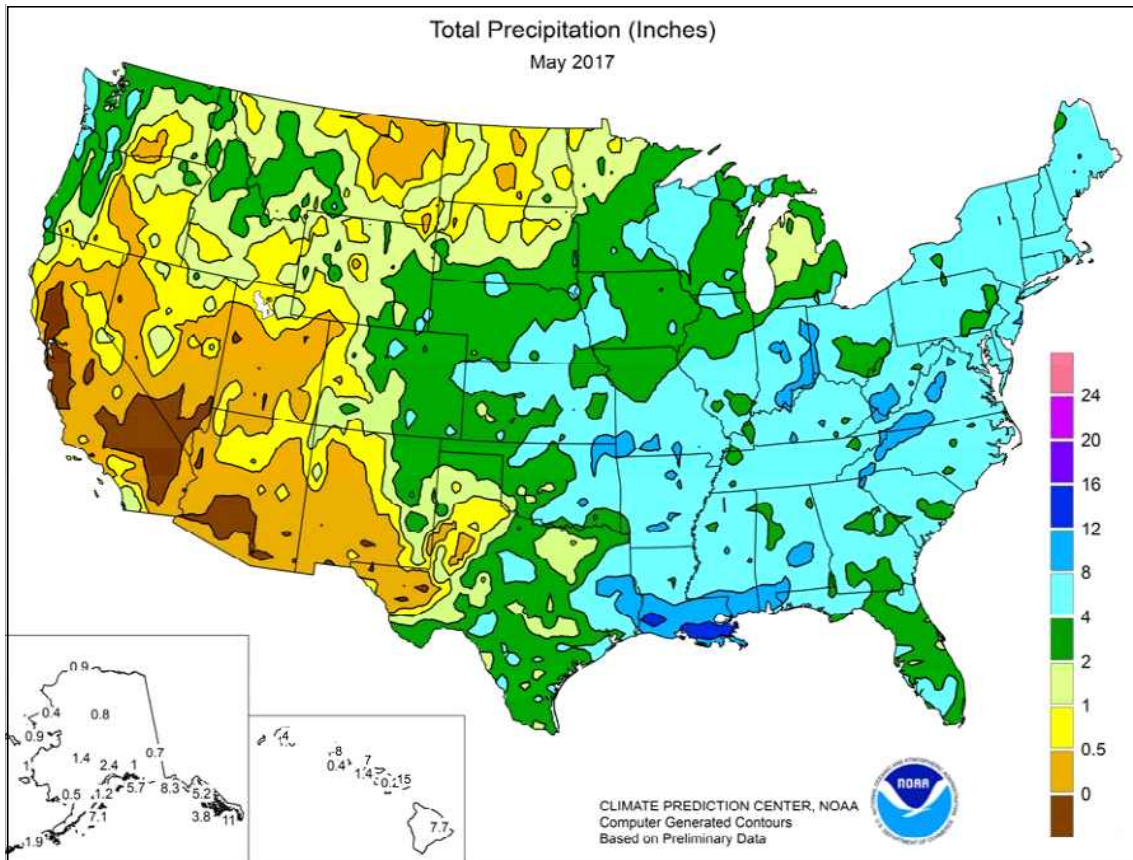


6월 1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24)

□ 미국 기후 현황(6/4~6/10)

중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고, 대두와 옥수수 파종작업은 종료를 앞두고 있다. 반면, 북부 평원 일대에서는 주 후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반면, 남동부 일대에서는 많은 비로 인해 겨울밀 수확작업이 지연되는 등 농작업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플로리다, 조지아 남부 전역에서는 4~8인치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다. 남서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다. 남서부, 내륙 산간지역 서부 및 북부 평원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10°F 이상 높은 날씨를 보였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더위는 다코타 등까지 확대되었고,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100°F까지 오르기도 했다. 북서부, 중부 및 로키산맥 일대에서는 소나기가 가끔씩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6/5~6/11)

남서부에서부터 중서부 북부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고, 대평원 북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6°F 이상 높았다. 반면, 남부 평원지역과 북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고, 델타, 오하이오 및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주들에서는 기온이 4°F 정도 낮았다. 주요 옥수수 재배지와 남서부에서는 비가 내렸고, 남동부에서도 플로리다를 비롯해 가뭄이 이어지던 지역 곳곳에 비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6/4~6/10)

■ 유럽: 주요 농업지역 전역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유지작물을 비롯해 프랑스 서부 등에서 재배 중인 여름작물의 생육에 큰 도움이 되었다. 폴란드 서부, 발칸반도 북부와 동부 일대에서는 50~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수확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중부와 남부에서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39°C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스페인 북부의 Castilla, Leon 등에서는 2~28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전역에서는 작물 생장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서부와 남부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벨라루스 등과의 국경 지역에서도 비가 조금 내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내 겨울밀 및 여름작물 재배지역에서는 지난 90일 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25~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동아시아: 중국 남부와 동부, 북부 평원 등에서는 비가 내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곳에 따라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남동부 일대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내린 비의 양이 평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보다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부 평원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10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평년에 비해 많았다. 북동부 지역의 남부와 동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유지했다. 한반도와 일본 중부 지역에서는 10~2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일본 북부와 남부에서는 25~50mm 내외의 제법 많은 비가 내렸다.

■ 호주: 주요 밀 재배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서호주, 남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퀸즐랜드 남부 등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지난 6주 간 내린 비의 양은 평년의 25~6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캐놀라와 밀 등의 생장이 늦어지고 있다. 빅토리아 주,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 등에서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남부와 동부 등 주요 밀 재배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낮고, 서호주의 북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C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아르헨티나 중부의 옥수수, 대두 수확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La Pampa, Buenos Aires, Cordoba 북부 및 Jujuy 등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Entre Rio 및 주변지역에서는 25~100mm 내외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La Pampa, Buenos Aires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C 정도 낮은 날씨를 보였고,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남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밤 동안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8일 기준 옥수수,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50%, 89%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빠른 편이다. 밀의 파종률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중부 일대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Maro Grosso의 남동부에서부터 Bahia 서부, Minas Gerais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올랐고, 이모작 옥수수와 면화 등의 생육 상황은 좋은 편이다. Minas Gerais에서는 커피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Sao Paulo 북부에서도 맑은 날씨 덕분에 사탕수수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Sao Paulo 남부에서는 비가 내렸다. Santa Catarina, Rio Grande do Sul 북부에서는 100mm 이상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Rio Grande do Sul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8일 기준 밀 파종률은 8%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